

 국토교통부	<h1>보 도 자 료</h1>		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	배포일시	2022. 4. 1.(금) / 총 3매(본문3)	
국토교통부	철도건설과	담 당 자	• 과장 김승범, 서기관 임성훈, 사무관 최승연 • ☎ (044) 201-4782, 3951
국가철도 공단	건설계획처	담 당 자	• 처장 민병균, 부장 우기하 • ☎ (042) 607-3871, 3872
보 도 일 시		2022년 4월 4일(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4. 3.(일) 11:00 이후 보도 가능	

## 국토부-건설업계, 철도산업 발전 소통 간담회 개최

- 중대재해 예방·철도산업 발전방안 등 업계 제안 청취·정책 방향 논의 -

□ 국토교통부(장관 노형욱)는 4월 1일(금) ‘철도정책 추진방향 공유를 통한 철도산업 가치제고, 사람중심의 안전관리 추진’을 내용으로 건설업계와의 소통간담회를 개최하였다.

- (일시 / 장소) `22.4.1(금) 15:00~ / 국가철도공단 수도권본부 회의실
- (참 석) 철도건설사업에 참여 중인 주요 20개 건설사 및 대한건설협회, 국가철도공단(코로나-19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참석규모 최소화)

□ 이번 간담회는 정부의 철도정책방향에 대해 건설업계와 공감대를 형성하고, 업계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청취를 통해 철도건설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으며,

- ①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전방위적 안전관리 강화, ②철도산업발전 선도를 위한 철도 R&D 추진현황, ③철도의 사회적 가치 제고 및 ④철도건설분야 상생·공정경쟁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하였다.

□ 먼저, **중대재해처벌법 시행(‘22.1.27)**과 관련하여 **중대재해 예방 강화 조치상황**을 점검하고, **최적의 설계와 안전한 시공을 독려**하며 철도 건설사업 특성에 맞는 **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필수 안전관리 사항 적극 이행**을 당부하였다.

○ 철도 R&D와 관련하여는, 세계 기술을 선도하기 위한 ‘세계 최장 경간(200m급) 경전철 고가구조물 실증’, ‘철도인프라 생애주기 관리를 위한 BIM기반 통합운영시스템 개발·구축’, ‘KTCS-3\* 열차 제어시스템 기술 및 성능 검증’ 연구의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.

\* KTCS-3(Korean Train Control System-3) : 이동폐색(閉塞) 기반의 유럽표준규격 (ETCS Level3)을 준용한 차세대 한국형열차제어시스템

□ 아울러, 철도시설과 연계하여 **창업공간, 철도어린이집 공급** 등 철도의 **사회적 가치를 제고**하는데 업계의 동참을 독려하였다.

○ 특히, 최근 철도투자 확대에 따라 올해 역대급 물량의 철도사업 발주가 계획\*된 만큼 **발주방식, 시기 및 공정성 강화**를 위한 특별 관리를 실시할 예정으로, 업계에서도 **공정하고 성숙한 수주경쟁 환경이 조성**될 수 있도록 **협조**해줄 것을 당부하였다.

\* '22년 10개의 사업(총 사업규모 15조원)이 설계·착공 등 후속절차 착수 예정으로, 20건 내외의 T/K 공사발주가 예상되는 만큼 공정성 강화, 사업차질 방지를 위한 특별관리 예정

□ 한편, 간담회에 참석한 건설사에서도 **다양한 의견**을 제시하였다.

○ 먼저, **중대재해예방**을 위한 최선의 노력이 모든 사고의 완벽한 예방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**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**이 절실하여, **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**을 요청하였다.

- 또한,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범위를 수도권 신규사업에서 전국의 기존 철도망(광역철도, 일반철도)을 활용한 모델까지 확대하고, 운임 수익 이외에 역세권 개발권 부여 등 수익창출 다양화 방안 마련도 요청하였다.
- 국토교통부는 국가발전을 선도하는 철도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강구해나가며 업계의 요청사항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화답하였다.
  - 특히, 철도안전 확보와 관련하여 사업주에 기술·교육·홍보 등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살펴보고, 민자사업 활성화 관련 건의도 철도산업 경쟁력 강화, 일자리 창출 등의 관점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.
  - 아울러, 정부 - 업계 간 소통 강화를 위해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다양한 논의의 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.
- 국토교통부 강희업 철도국장은, “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의무사항의 철저한 이행 등 근로자들의 안전확보에 건설업계가 앞장 서주길 재차 당부드린다”며,
  - “정부도 철도가 국민의 삶과 함께하며 사회발전을 선도하는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, 업계의 기술력과 창의력이 융합된 제언을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”라고 밝혔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철도 건설과 임성훈 서기관(☎ 044-201-4782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